



한라포커스 수사중 아는데... '폴리스라인' 어떻게 생각하나요

# 경찰도 설치해놓고 '가우뚱'

### 모호한 법 경찰통제선 무분별 사용 부추겨 집회 때 제외하고는 명확한 사용 규정 없어 인터넷 쇼핑몰서 판매돼 손쉽게 구매 가능

지난 10일 오전 7시쯤 제주시 용담3동 해안도로를 걸던 A씨는 흠칫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해안가 쪽에 '수사중'이라고 적힌 노란색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이 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취재 결과 이 폴리스라인은 수사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었다. 육경이든 해경이든 도내 경찰기관은 수사 목적으로 친 것이 아니라면 수사 목적도 명확한 설치 주체를 찾지 못했다. 다만 잇따른 태풍 내습 때 일반인들의 해안가 출입을 막으려고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황당해했다. 그는 "그럼 수사중도 아는데 수사중이라고 적힌 폴리스라인을 쳤다는 것이냐"면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주민 불안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집회·시위 때를 제외하곤 폴리스라인에 대한 사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경찰 장비를 규정한 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장비법) 등 2가지다. 이중 직무집행법은 경찰 장비를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최루제(催淚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장치와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또 ▷범인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목적으로 경찰 장비를 사용하도록 했다.

지난 10일 발견된 정제불명의 '폴리스라인'을 '경찰 장구'로 보고, 또 인명 사고 방지를 위해 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이 정한 생명 보호 목적에 가까워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법에도 경찰 장구가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으로만 명시돼 있다보니 경찰조차도 폴리스라인이 경찰 장구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폴리스라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사용 규정과 상관 없이 폴리스라인을 칠 때에는 수사 또는 사고 방지 등 설치 목

적을 명확히 알려야 막연한 주민 불안을 떨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누구나 구입 가능=직무집행법이 경찰장비 사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다룬 것이라면, 경찰장비법은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한 규제들을 정한 것이다. 경찰 제복이 대표적이다. 경찰 제복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 경찰 사칭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제복은 오로지 경찰만 입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늘 상 사용하는 폴리스라인은 이런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다. 경찰장비법은 일반인 사용·유통이 금지된 경찰장비로 ▷수갑 ▷방패 ▷경찰권총 허리띠 ▷경찰차량 등으로만 규정했다.

이런 이유로 폴리스라인은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폴리스라인'을 치면 '수사중'이라고 적힌 상품 십수개가 검색된다. 가격은 1개당 1만원 안팎이다.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일반인 유통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갑, 방패 등은 위험 물품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와 경찰 사칭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일반인 유통을 막은 것"이라며 "반면 폴리스라인은 위험 물품으로 볼 수 없어 유통 금지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 일반인이 내 집 앞 주차를 막을 목적으로 폴리스라인을 치는 것도 허용되느냐"는 질문에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그물 보수작업하는 어선 14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앞바다에서 어민들이 덩장 그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민기자

## "천만원권 수표 두장 없어졌어요..."

### 70대 도난신고 해프닝 경찰, 집 안에서 발견

최근 1000만원권 수표 2장을 도둑맞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이 수표는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수표 주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12분쯤 서귀포시 성산을 주민 A(79)씨가 "2000만원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최근 1000만원권 수표 2장을 인출해 전화번호부 사이에 끼어 보관했지만, 감쪽같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3년 전에도 거액의 현금을 도난당한 적이 있어 경찰은 바짝 긴장

했다. 다만 경찰은 고령의 A씨가 보관장소를 착각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 내부를 수색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경찰은 2시간여 수색 끝에 마루 작은 서랍장 밑에 있던 전화번호부에서 수표를 발견했다. A씨는 "추석 때 사용할 소중했던 돈인데 잃어버린 줄 알고 가슴을 졸였는데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며 경찰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찰은 "귀중품과 많은 액수의 현금은 집안에 두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잇따른 태풍 때 사고 방지 목적으로 친 폴리스라인. 그러나 안전 방지 목적이라는 경찰 설명과 달리 폴리스라인에는 '수사중'이라고 적혀 있다.

## 술 취한 해양경찰관 '묻지마 폭행'

### 해경 "직위해제... 수사결과보며 징계수위 결정"

술에 취해 길 가던 고등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까지 깨문 현지 해양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4일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A경위(46)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A경위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술에 취

한 채 길을 걷다 고등학생 4명에게 시비를 걸고, 학생들이 항의하자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길을 걸던 시민 1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여성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경위의 폭행으로 학생 1명이 코

뼈가 골절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귀포경찰서는 A경위가 사건 당일 경비합정 임무를 마치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외출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4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서귀포해경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해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영준기자 yjhyeon@ihalla.com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 제라온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능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감, 탐나는봉

가정원예 (조경수)

2~7년생 하갈, 필삭, 세미늘, 금굴,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탕자묘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유라실생	3,4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레조생, 궁천, 궁천번이 (2년생 이상 100% 아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